

“최악의 한주”...美 확진자 32만명 넘어서

사망자 수 9180명

뉴욕주 사망 증가폭 첫 둔화

경질 루스벨트호 함장도 감염

미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이번 주를 포함해 향후 1-2주가 가장 힘든 주가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 가운데 미국 확진자가 32만명을 넘어서다.

미 존스홉킨스대학은 5일 오후 2시30분(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32만5185명으로 집계했다. 사망자 수는 9180명이다. 전 세계 확진자의 약 25%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아마도 이번 주와 다음 주 사이가 가장 힘든 주가 될 것”이라며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많

은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이날도 최악의 상황에 대한 우려와 경고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미 공중보건위생 책임자는 제롬 에덤스 공중보건서비스단(PHSC) 단장은 ‘폭스뉴스 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의 1주일대에 대해 “대부분의 미국인의 삶에서 가장 힘들고 슬픈 주가 될 것”이라면서 “이것은 우리의 진주만과 9·11(같은) 순간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극을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진주만 공습과 2001년 9·11 테러에 비유한 것이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 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NIAID) 소장도 이날 미 CBS 방송에 출연해 “심각한 한주가 될 것”이라면서 “미국은 (현재) 코로나바이러스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가 통제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한 주내 또는 그보다 좀 더 후에 우리는 (코로나19 확산) 곡선이 평탄해지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내에서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뉴욕주는 확진자가 전날보다 8327명 늘어난 12만2031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594명이 증가한 4159명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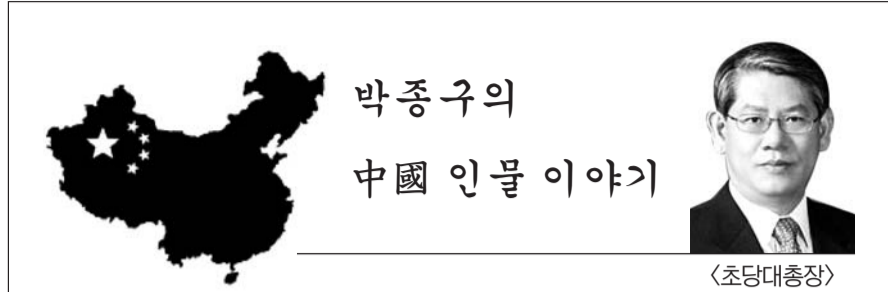
“24시간 기준” 뉴욕주의 신규 사망자 규모가 처음으로 감소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신규 사망자 숫자가 약간 정체됐지만 “이는 일시적 현상일 수 있다”면서 선부른 낙관을 경계했다. 뉴욕주 다음으로 확진자가 많은 뉴저지주는 확진자가 전날보다 3482명이 늘어난 3만7505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917명을 기록했다.

확진자가 급증하는 루이지애나주의 존 벨 에드워즈 주지사는 추가 확보한 인공호흡기가 오는 9월께 동이 날 수 있다고 우려

했다. 루이지애나주 확진자는 1만2000여 명으로 확진자 규모 면에서 뉴욕주와 뉴저지주, 매사추세츠주의 뒤를 잇고 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 호 승조원 가운데 코로나19 감염자가 155명에 이르며, 다만 이들중 입원자는 없다고 밝혔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지난달 말 승조원이 5000명에 달하는 루스벨트호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우려해 하선을 요청하는 서한을 상부에 보냈다가 전격 경질된 브렛 크로지어 전 함장도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전했다. 끝에 정박 중인 루스벨트호의 승조원들 가운데 약 절반 정도는 하선해 호텔 등에서 격리 생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텔라웨어 주와 사우스다코타주에 대해 중대 재난지역 선포를 승인했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중국 인물 이야기

<227> 정이

정이(1033-1107)의 자는 정숙 호는 이천(伊川)으로 허난성 휘양 사람이다. 형 정호와 함께 송나라 도학을 대표한다. 형과 함께 이정자(二程子)로 불리며 정주학(程朱學)의 창시자다. 송사에 따르면 임지 않은 책이 없었고 그 학문도 성(誠)에 근본을 두고 사서(四書)를 표방하고 육경에 통달했다고 한다. 형과 함께 주돈이에게 사사했다. 구법당 계열로 철종 초 사마광, 여공저의 추천으로 국가감 교수가 되었고 비서성 교서관, 승정원설서로 기용되었다. 낙축(落黜)의 당쟁에 연루되어 쓰촨성 푸저우로 유배되기도 했다. 휘종때 복관되어 중앙에 복귀했다. 정이천은 이학(理學) 일파의 선구자

서 과거적으로 발탁해 선비에게 모범으로 삼으십시오.” 조정에서 강의할 때에는 자세를 엄격히 하였다. 누군가 이를 보고 물으니 답하기를 “나는 한미한 신분으로 시강직(侍講職)을 맡았으니 또한 자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루는 철종이 치질에 걸려 며칠동안 안 앓아 있을 수도 없는 상태였다. 선생은 물러나와 재상에 물었다. “폐하께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상태인데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선생이 말하기를 “황제가 병들어 계신데 재상이 물러서야 되겠습니까?” 재상은 다음날 상주를 올려 병세를 물었다. 이일로 인해 조정 중신들이 대부분 그를 싫어하게 되었다. 간의대부 공문중이 선생을 다음과 같이 탄핵했다. “그는 간사하고 아첨만을 일삼

송나라 도학 대표 인물...정주학 창시자

다. 평유란 해석에 따르면 정이천은 ‘리는 영원하며 증가할 수도 소멸할 수도 없다’고 보았다. “하늘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생겼다가 없어지고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것을 상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인간이 그것에 관하여 알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다. 이천은 수양방법으로 궁리(窮理)를 중시했다. 수양하려면 경(敬)을 배워야 하고 학문의 정진은 지식 추구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경건하면 자연히 허정(虛靜)해진다. 수양함에 있어 우리는 늘 삼가(敬)해야 한다. 이후 경건은 신유가의 핵심적 용어가 되었다. 오늘 한 사물을 탐구하고 내일 또 한 사물을 탐구하면 ‘저절로 관통하는 경지’가 생길 수 있고 우리 마음 전체를 시원스럽게 깨달을 수 있다. 리를 궁리하면 궁리(窮理) 성을 다 발휘하고(盡性) 성을 다 발휘하면 곧 천명에 이르게 된다(至命).

1085년 철종이 즉위하자 사마광, 여공저, 한강은 정이의 의로운 행실을 추천했다. 사마광과 여공저는 추천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정이는 옛 것을 좋아하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빈한하지만 절의를 지키고 충신에 따르는 언행을 하고 있으며 예에 맞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50이 넘었지만 출세를 구하지 않으니 진실로 유자라 하겠습니다. 삼가 폐하께

아베, 이르면 오늘 코로나19 긴급사태 선언

확진자 급증 수도권 대상
요미우리 “의료붕괴 우려”
전문가 의견 청취 후 발표할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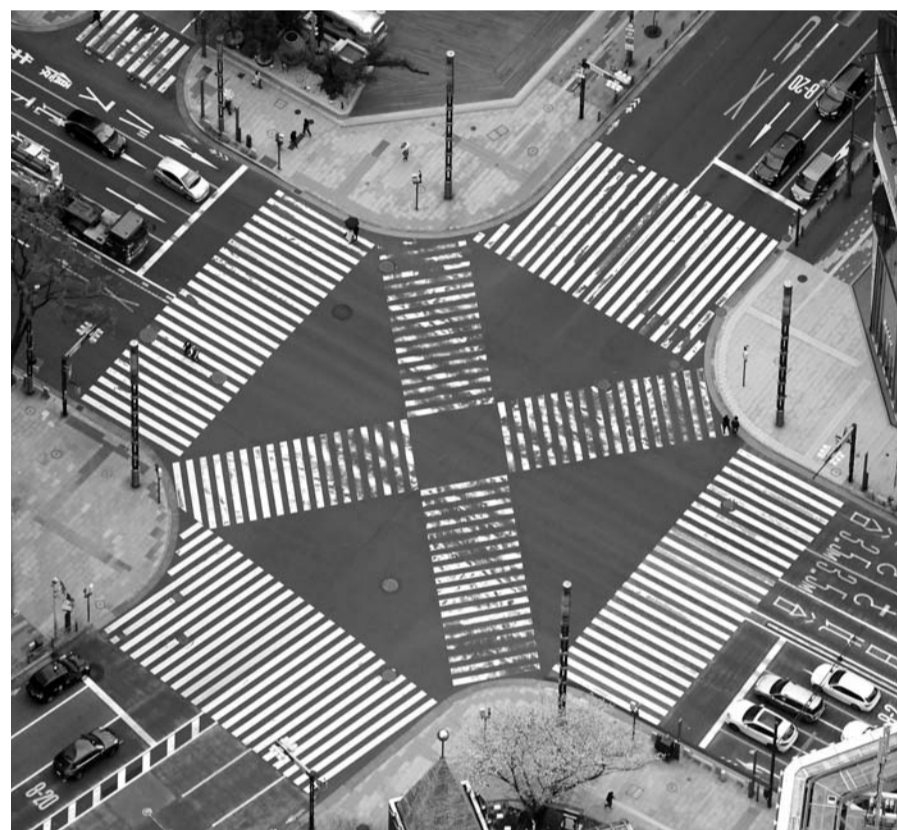
일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긴급사태를 곧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긴급사태를 선언할 의향을 굳혔으며 일본 정부가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긴급사태 선언한다는 방침을 이르면 표명하고 7일 선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총리는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의료 시스템이 붕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을 대상으로 긴급사태를 선언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은 도쿄 등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병상 부족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긴급사태를 선언하면 당국은 임시 의료 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사용하는 등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병상 확보에 도움이 된다. 일본 정부대책본부장이 총리는 코로나19 등 법률로 정한 전염병이 전국적으로 급속히 퍼져 일본인의 생활 및 일본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신형인플루엔자 등 대책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에 따라 긴급사태를 선언할 수 있다. 긴급사태가 선언되면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 지사는 법적인 근



일본 도쿄 변화가 긴자의 횡단보도가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출 자제 권고로 텅 비어 있다. /연합뉴스

거를 가지고 외출 자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흥행 시설 이용 제한 요청·지시 등도 할 수 있게 된다.

긴급사태를 선언하는 경우 이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긴급사태 조치의 개요·실시 구역 및 기간 등을 공표해야 한다. 긴급사태를 선언하더라도 강제 외출 금지 조치는 내려지지 않으며 이른바 ‘도시 봉쇄’는 없을 것이라고 일본 정부와 도쿄도 등은

설명하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아베 총리가 6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긴급사태 선언 여부를 곧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NHK에 따르면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5일 기준 457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보다 362명 늘어난 수준이다. 도쿄의 확진자는 이를 연속 100명 넘게 늘어나 1033명이 됐다. /연합뉴스

“은화한 대응...행정 추적 코로나19 증가세 제동”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일본 언론은 연일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소개하고 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한국이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가운데 “엄격한 외출 제한을 행하고 있지 않다. 정부나 서울시는 자제 요청에 그치고 있다”고 6일 보도했다.

신문은 한국과 스웨덴은 은화한 대응을 택한 국가로 꼽힌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요미우리는 “그 대신(한국) 정부가 힘을 쓰고 있는 것은 감염자 행동 이력의 철저한 추적”이라며 확진자의 설명, 휴대전화 위치 정보, 신용카드 사용기록 등을 활용해 “이동 경로를 철저히 밝혀낸다”고 설명했다.

산케이(産経)신문은 한국이 대량 검사를 실시하고 확진자의 행적을 철저히 추적해 코로나19의 증가세를 제동했다는 취지로 전날 보도하며 “한국에 진단 키트 등의 수출이나 지원을 요구하는 나라는 100개국을 넘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아사히(朝日)신문은한국이검사, 추적, 치료를 충실하게 한 결과 의료 붕괴를 예방했다고 평가하는 등 최근 일본 언론이 잇따라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기사로 다루고 있다. /연합뉴스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전국 3대 명당으로 꼽히는 보성을 아십니까?
그 곳에 수목장이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이장부터 안치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061)322-6183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